

日중학교 교과서도 가해역사 희석...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독도는 외교영토...韓이 불법점거’ 억지주장 ‘일부 징용’ 변경하고 ‘중군위안부’ 용어 삭제

일본 중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내용이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현행 교과서와 비교해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일부 변경됐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올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징용·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강제가 없었다는 ‘역사 수정주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울리 독도 관련 내용에서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교과서가 늘었고, 대부분의 교과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 징용 노동 서술서 ‘강요’ 빼...위안부 기술에 日정부 견해 반영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심의회를 열어 중학교에서 2025년도부

터 쓰일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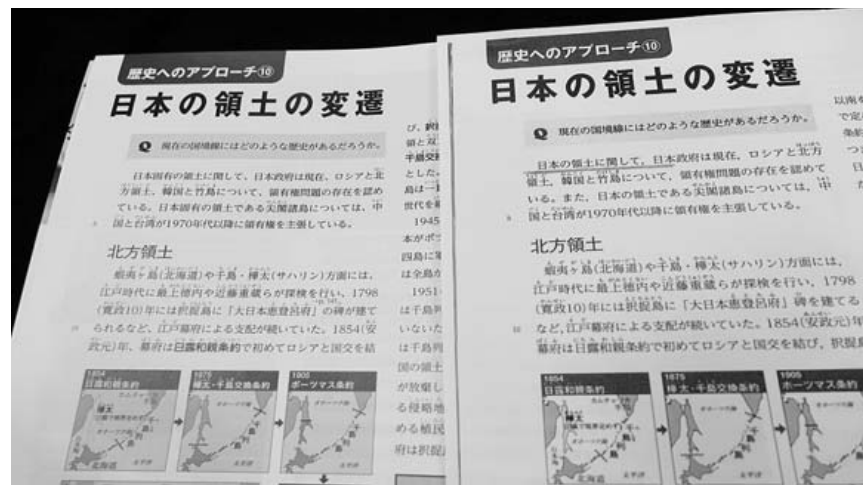
그 중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 4종, 공민 6종, 역사 8종 등 총 18종이다. 공민(公民)은 일본 헌법과 정치, 경제 등을 다룬 과목이다.

2020년 검정 당시와 비교하면 지리와 공민은 합격 교과서 수가 동일하고, 역사 시간 7종에서 8종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검정 문턱을 넘은 역사 교과서 중 자유사 교과서는 2020년 검정에서 탈락했다가 2021년 다시 심사받아 통과한 바 있다. 자유사는 이쿠호사와 함께 우익 사관을 담은 교과서를 폐내는 곳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가해 역사를 희석하려는 경향은 여러 교과서에서 나타났다.

이쿠호사 역사 교과서는 태평양전쟁 시기 생활에 관한 서술에서 “조선과 대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현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만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4년 전 검정 통과 당시 문장을 “조선과 대만에도 일부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바꿨다.

징병과 징용이 ‘일부’ 사람을 대상으로만 이뤄졌고, 노동에 강제성이 없었

다는 쪽으로 기술을 변경한 것이다.

아미카와출판 역사 교과서는 위안시설 관련 서술에서 4년 전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이른바 중군위안부)”고 적었던 부분을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로 교체해 위안부 여성 중에 일본인도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중군위안부’라는 표현을 뺐다.

이쿠호사 공민 교과서는 위안부 강제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관련 정정 보도 사례만 실었다.

일본 정부가 2021년 강제성을 희석하기 위해 ‘중군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채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독도 서술서 ‘韓 불법 점거’ ‘日 고유 영토’ 교과서 늘어

새로운 중학교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 있는 일본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예컨대 지리 교과서 중 채택률이 가장 높은 제국서원 교과서는 “한국은 해양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정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해경과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쓴 교과서는 4년 전 17종 가운데 14종으로 약 82%였으나 이번에는 18종 가운데 16종, 약 89%로 증가했다.

아미카와출판이 펴낸 역사 교과서는 기존에 “일본 영토에 관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 다케시마에 대해 영유권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문장에서 ‘일본 영토’를 ‘일본 고유 영토’로 변경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아미카와출판이 고유영토론을 다른 점이 중요하다”며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의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전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적었던 이쿠호사 공민 교과서는 ‘고유 영토’라는 표현에 대해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토지”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스크바 테러 용의자 “총격 사주받아...1천800만원 약속”

용의자 등 11명 체포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 및 방화 테러를 한 용의자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검거된 테러범 중 1명은 당국의 신문 과정에서 “지시자가 공연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해하라는 임무를 맡겼다”고 진술했다.

검거 직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을 보면 자신을 1988년생으로 밝힌 삼숙닌 파리둔은 한 달 전쯤 신원 미상의 ‘전도사’라는 인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러시아어로 말했다.

이 인물과 대화하며 범행을 결심한 그는 지난 4일 튀르키예를 통해 러시아로 입국했다고 말했다. 튀르키예에서 무기 상점 정보를 받아 무기를 구했다고 한다.

그는 “나는 돈을 위해 공연장에서 사람을 쏘았다”며 애초 범행 대가로 50만루블(약 73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털어



2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북서부 크라스노고르스크의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무차별 총격 테러 희생자 추모 공간 앞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냈다.

그가 실제 전달받은 돈은 그 절반가량에 불과했지만 지시자로부터 ‘나중에 100만 루블(1천461만원)을 주겠다’고 제차 약속받았다고 한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전날 모스크바 북서부 크라스노고르스크의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자동소총을 무차별 난사해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해 이 사

건 관련자 총 11명을 검거했다.

러시아 내무부는 핵심 용의자 4명이 모두 러시아 시민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타지 키스탄 국적자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체감 62도 폭염 뒤 300mm 폭우...극심한 기상이변

극심한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가 일주일 새 브라질 남동부를 강타했다. 극한 기상이변에 최소 13명이 숨지는 피해도 잇따랐다.

23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이스파리투산투·상파울루주(州)에는 전날 천둥·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산사태와 도로 침수가 이어졌다.

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이재민이 속출한 가운데 지금까지 적어도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앞서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지난주 체감온도 62도(파리치바)를 기록하는 등 때아닌 폭염이 보고됐다.

기상당국은 당시 높은 습도 때문에 반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산사태와 도로 침수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사위 빨리하면 숙박비 할인...프랑스 호텔 ‘물 절약’ 실험

프랑스의 한 호텔 체인이 사위를 빨리 끝내 물을 아낀 투숙객에게 숙박비를 할인하는 가격 시스템을 도입했다.

프랑스 일간 르피파르는 최근 각종 환경 보호 정책을 시행 중인 호텔을 소개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지점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3성급 호텔 체인 노마드는 손님이 호텔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할 때 ‘물 절약’ 옵션을 제공한다.

이 옵션은 한 사람당 1박 동안 물 사용량을 100ℓ 제한하고 이를 넘기면 유량을 줄인다. 그 대가로 손님은 상징적

으로 1유로(약 1천400원)를 할인받는 다.

손님은 객실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실시간 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호텔 측은 사위 시간을 2분만 줄여도 평균 24ℓ의 물을 절약한다고 사위를 빨리 끝낼수록 손님이 유리해진다고 소개했다.

이 호텔을 설립한 구르반 브라넬렉씨는 “우리는 손님이 참여형 숙박을 하길 원했다”며 “상징적인 작은 절약을 통해 환경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國제의식산업(주) 출장부페